

황석영 초기 소설에 나타난 ‘문제적 개인’

김승중(전주대)

〈목 차〉

- | | |
|-----------------------------|--------------------------|
| 1. 머리말 | 4. 집단적 인물로서의 ‘문제적 개인’ |
| 2. 비극적 인물로서의 ‘문제적 개인’ | 4.1. 민중계층의 낙관성과 공동체적 인간애 |
| 3. 민중과 지식인의 통합체로서의 ‘문제적 개인’ | 4.2. 고향 상실과 내면의 순수성 |
| | 5. 맺음말 |

〈국문 초록〉

『한씨 연대기』는 타락한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그 세계를 거부하면서 스스로 세계를 거부당하는 존재’ 혹은, ‘타락한 사회와 진정한 가치를 향한 내적 열망 사이의 간극에 끼어 있다가’ 비참하게 희생된 ‘문제적 개인’이자 ‘비극적 인물’로서의 의사 한영덕을 그리고 있다. 단지 의사로서의 본분에 충실했다는 이유만으로 남·북한 모두로부터 버림받은 ‘문제적 개인’의 형상화과정을 통해 작가는 분단의 모순과 분단 현실을 악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세력을 대조적으로 그리고 있다.

전태일의 분신자살과 작가의 체험이 창작의 바탕이 된 황석영의 「객지」는 1970년대 민중적 리얼리즘 문학이 거둔 값진 성과로 평가되어 왔다. 이 작품에서의 ‘문제적 개인’은 ‘대위’와 ‘동혁’이라는 두 인물을 통해 형상화되고 있다. 작가는 대위를 통해서는 당대 노동자의 인식과 사고 및 행동의 수준을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동혁’을 통해서는 이념성 및 전략적 사고력, 희생정신 등과 같

이 앞으로 노동자들이 갖추어야 할 자질이 무엇인지를 ‘미래적 전망’의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돼지꿈」과 「삼포가는 길」에 등장하는 이들은 고달픈 생활 속에서도 생기와 낙관성을 잃지 않으며 결코 꿈과 희망을 잃지 않는다. 이들로 하여금 강한 생존력과 낙관성을 갖도록 하는 것은 ‘공동체적 연대의식’이다. 이들 작품에서의 ‘문제적 개인’은 한 개인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의지함으로써 고단한 삶 가운데 서로 위안이 되고 빛이 되는 ‘집단적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주제어 : 리얼리즘, 문제적 개인, 민중, 공동체적 연대, 낙관성.

1. 머리말

황석영은 19세에 불과했던 1962년에 암벽 등반을 소개로 한 성장소설 「입석부근」으로 『사상계』를 통해 등단하였다. 그는 청소년기 시절부터 제도와 관습에 순응하기보다는 주체적이면서도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4.19, 한일회담반대시위, 월남전, 광주민주화항쟁, 독일통일, 런던 지하철 테러 사건 등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역사적 현장을 직접 목격하거나 체험하였으며,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함으로써 그곳의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작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1993년부터 1998년까지 5년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오래된 정원』을 통하여 창작을 재개하면서부터는 “리얼리즘이 갖고 있던 딱딱함, 고지식할 정도로 시점·인칭·사건의 배열 등을 한정짓던 것”을 풀어버리고 황해도 지노귀곳 12 마당을 차용한 『손님』(2000)이라든가,¹⁾ 서도동기(西道東器)론에 입각하여 탈북자의 삶을 그린 『바리데기』(2007), 강남 개발의 허상을 ‘심포지엄적 구성방식’을 통해 제시한 『강남몽』(2010)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식을 지속적으로 실험하고 있다.

이 글에서 필자는 헝가리 출신의 20세기 대표적인 문예 이론가인 게오르그

1) 최원식 외 편, 「대담 : 황석영 삶과 문학」, 『황석영 문학세계』, 창비, 2003. 61쪽.

루카치기『소설의 이론』(1915)에서 제시한 ‘문제적 개인’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황석영의 초기 중·단편소설들 중 「깎지」, 「한씨 연대기」, 「돼지꿈」, 「삼포가는 길」 등의 작품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들 작품은 리얼리즘 소설로서 황석영이 도달 가능했던 문학적 성취를 보여줌과 동시에 문제점과 한계를 노출하고 있으며, 이후 망명, 방북, 투옥 등의 굴곡진 삶의 역정을 겪으면서까지 그가 치열하게 극복해야만 했던 문학적 과제를 남긴 작품들이기도 하다.

황석영의 중·단편소설들은 그동안 여러 평론문과 학술 논문 및 학위논문을 통해 다루어진 바 있다. 대부분의 평자들과 연구자들은 그의 초기작들이 ‘정통 리얼리즘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당시의 현실적, 문학적 상황에서 표면에 떠오르지 못했지만 저류에 흐르고 있던 새로운 삶, 혹은 힘의 세계를 치밀하게 복원해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²⁾

그런가 하면 하정일, 서영인과 같은 연구자들은 황석영이 거둔 문학적 성과를 일정하게 인정하면서도, 그의 작품이 ‘낭만주의적 편향’, ‘영웅주의’, ‘쓸쓸함과 비애의 정서와 같은 문제점과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하정일은 「깎지」의 경우 “동혁의 변모가 별다른 현실적 계기 없이 우연적이고 돌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동혁이 아무런 내적 갈등이나 고뇌도 없는, 지나치게 완벽한 인간으로 그려지고 있는 점”에서 ‘영웅주의적 형상화’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비판하였다.³⁾

또한 서영인은 “삼포가는 길, 「돼지꿈」과 같은 작품에서 이루어진 연대는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들끼리의, 그들만의 연대일 뿐이며, 산업화가 만들어낸 수많은 불우한 사람들, 노동자, 빈민, 떠돌이들의 인간적 유대와 소통이 그것 자체로 훈훈하지만 비감의 정서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적하였다.⁴⁾ 이와 같은 비판적 견해에 대해 임규찬은 다음과 같은 반론을 폈다.

한 마디로 ‘동혁’의 형상화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를 향한 외침이자 미래에의 전망을 달성하고자 하는 당대 현실의 경향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이었

2) 백문임, 「황석영론-뜨내기 삶의 성실한 복원」, 『현역중진작가연구 I』, 국학자료원, 365쪽.

3) 하정일, 「민중의 발견과 민족문학의 새로운 도약」, 민족문학연구소 편, 『민족문학사강좌』 하, 창작과비평사, 1995. 263~264쪽.

4) 서영인, 「물화된 세계, 소외된 꿈」, 『황석영 문학세계』, 창비, 2003. 147쪽.

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손쉽게 낭만화 혹은 영웅주의화로 명명하여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인물 자체의 형상도 ‘영웅’이라기보다는 ‘희생자’, ‘씨울’ 등의 이미지에 부합된다. ‘혁명적 낙관주의’보다는 ‘비장미’, ‘비극비’가 더 적절하게 분위기를 치정해주는 듯한 느낌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그럼에도 솟구쳐 나오는 ‘낙관주의’이다. 이것은 희생자로서 동혁의 면모나 비극적 결말부가 문자 그대로만 해석될 수 없음을 뜻한다. ‘분신’이라는 비극적 암울함에도 불구하고 작품 안에서 보이지 않게 솟구치는 것은 낙관적인 힘이다.⁵⁾

이처럼 황석영의 초기 중·단편소설에 대한 평가가 다소 엇갈림에 불구하고 그가 1970년대 문학이 감당해야 할 역사·사회적 책무를 성실하게 감당한 작가임과 동시에 한국 리얼리즘 문학의 수준을 한 단계 상승시킨 작가였음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작가 자신이 인정한 바대로 리얼리즘적 창작 방법론 자체가 지닌 한계와 기본적 인권마저 제한받았던 시대적 한계로 말미암아 그의 소설들이 삶과 현실의 다양한 측면과 미세한 내면심리 등을 독특하고 다양한 형식을 통해 입체적으로 조명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이글에서는 게오르그 루카치의 ‘문제적 개인(problematic individual)’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황석영 초기 소설들의 리얼리즘적 성격을 재조명하고자 한다.⁶⁾ 여기서 필자는 ‘문제적 개인’이라는 개념을 특정한 한 개인을 지칭하는 개념이 아니라 ‘리얼리즘 소설의 미학의 한 축을 구성하는 형식적 요인’으로 보고자 한다. 따라서 ‘문제적 개인’은 「한씨 연대기」의 ‘한영덕’처럼 한 사람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객지」에서와 같이 두 사람(‘대위’, ‘동혁’)일 수도 있고, 「돼지꿈」이나 「삼포가는 길」에서처럼 ‘집단적 인물’의 성격을 지닐 수도 있다.

5) 임규찬, 「「객지」와 리얼리즘」, 『황석영 문학세계』, 창비, 2003. 166쪽.

6) 루카치에 의하면 ‘문제적 개인’은 타락한 사회와 진정한 가치를 향한 내적 갈망 사이의 심연에 긴 존재이며 진정한 가치에 대한 그의 추구는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모험이다. 또한 그는 ‘길이 끝난 지점’에서 여행을 시작한다. 문제적 개인이 대개의 경우 광인이나 범죄자 등과 같은 악마적 성격을 지니거나, 사회의 보편적 가치 질서에 맞서는 이질적이고 소외된 인물로 나타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조화로운 삶을 향한 가치를 갈망하고 추구하는 과정을 통해 당대 사회의 가치 부재 현상을 드러내는 문제적 개인은 본질적으로 비극적 인물이다. 게오르그 루카치, 『소설의 이론』, 심설당, 1985, 110쪽.

2. 비극적 인물로서의 ‘문제적 개인’

— 「한씨 연대기」

「한씨 연대기」(1972)의 주인공 한영덕은 평양의전과 교오토의대를 나온 이후 북한의 김일성 의대에 재직 중에 6.25전쟁을 맞이한다. 젊은 교수들은 영악하게 북한의 정치 체제에 편승하여 일신의 영달을 꾀하지만 그는 환자 치료에만 전념한다. 심지어 평양이 함락되기 이전에 북한 병원을 벗어나서 국군에 합류하지는 친구이자 동료인 서학준의 권유도 뿌리치고 끝까지 환자의 곁을 지킨다.

특별병동 환자를 우선적으로 돌보라는 당의 명령을 어기고 한영덕은 보통 병동의 소녀를 살려내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다가 북한 공안기관에 의하여 처형된다. 다행히 총알이 그를 스치고 지나는 바람에 그는 극적으로 살아난다. 비록 살아나기는 하였지만 북한 체제로부터 버림받은 그는 어쩔 수 없이 가족을 뒤로하고 남행길에 오른다. 이러한 한영덕의 고지식한 성격에 대하여 서학준은 다음과 같이 평한다.

영덕인 자기에게 너무 까다롭ديو. 대법하게 잊어 두는 법이 없쇠다. 기렁다구 표현두 못하면서 속으루만 괴로워합네다레. 모든 세상 불의를 자기 까탄으로 돌리는 거야요. 난두 답답할 대가 한두 번이 아녜대시오. 이러케 괴로운 세상에 한군은 꼼짝없이 손해 볼 처신으루 살아온 거야요. 폐양 수복 당시만 해두 보시랴요. 난 무사하게 숨어서 라디오나 듣구 지냈는데, 이 친구레 처형장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지 않았갓시오.

- 『객지』, 99쪽.

한영덕은 이처럼 “개인과 바깥 세계 사이에 놓인 내적 괴리의 산물”의 성격을 지닌 ‘문제적 개인’이라 할 수 있다. 그는 북한에서든 남한에서든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책무에 충실하게 이행할 뿐이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당 간부나 고위직 인사의 가족만을 우선 치료해야 된다는 방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버림을 받고, 남한에서는 동업자의 턱없는 의심과 시기심 때문에 간첩으로 몰려 모진 고문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동업자의 불법 의료 행위로 인하여 생명이 위태로운 산모의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뒤처리를 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언도받고 의

사면허 정지 처분까지 받는다.

루카치가 지적한 대로 이미 “개인과 세계 사이의 어떠한 근본적인 내적 불화나 갈등도 생겨나지 않았던 서사시 시대”는 종결되고, 이 세계는 “개인에게 더 이상 친숙하고 아늑한 장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영덕은 ‘세계의 지도를 밝혀 주는 빛’을 찾기 위하여 의사의 직분에 맞게 올곧은 길을 걷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 ‘빛’을 결국 분단 상황이 초래한 “불안과 갈등과 소외감으로 가득 찬 그 자신의 어두운 내면에서” 찾을 수밖에 없게 된다.

한영덕은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먼저 챙기기보다 의사로서의 본분을 끝까지 지키고자 하다가 늘 위협에 처하거나 불이익을 당한다. 또한 선의로 행한 일이나,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올곧게 처신한 것 때문에 곤경에 처한다. 자신이 의사가 된 것까지 후회하게 된 그는 출옥 이후 가급적 의료업계와 거리를 둔 채 문방구 주인, 시간제 의사, 기숙사 사감, 장의사 직원 등의 다른 직업들을 전전하며 산다. 이는 물론 한영덕이 남한에서마저 사회적 생명을 상실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의 패배와 소외는 오히려 그가 “세계의 총체성 상실을 전 존재적으로 체현하였음 반어적으로(irony)증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서학준 씨는 사리 판단에 밝은 자기의 충고를 한영덕 씨가 번번이 거절했을 때마다 친구를 굳이 납득시키려 하지 않았다. 한 씨의 태도가 세상살이에 불리한 건 틀림없지만 그 무렵엔 드문 고집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 『객지』, 113쪽

친구인 서학준은 자신이 ‘사리 판단에 밝다’고 자부하면서도 한영덕의 ‘드문 고집’에 대해 일종의 경외감을 느낀다. 한영덕이 자신의 고집 때문에 번번이 손해를 보고 고난을 당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지만, 그의 인간과 의사로서의 정직함과 성실함 및 흔들림 없는 태도는 서학준을 감복시키기에 충분하다. 이는 서학준 역시 ‘서사시적 총체성이 사라진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의사 혹은, 한 인간으로서 ‘내면의 빛’을 찾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한영덕을 무조건 ‘실패한 인간’으로 치부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 작품이 이른바 박정희가 ‘종신 대통령’을 꿈꾸며 반포한 ‘시월 유신’과 같은 해에 발표된 것은 주목을 요한다. 박정희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정권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라는 명분을 내걸고

1972년 10월 17일에 ‘시월유신’을 단행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칙들이 무너지고 인권 유린 사태가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결과적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는 크게 후퇴하였다.

또한 이 작품이 발표된 시기를 전후하여 ‘남북적십자회담’이 개최되기도 하였다. 제1차 본회담은 1971년부터 시작되어 1985년 12월 4일까지 10차례의 본회담이 개최되었다. 초창기 회담에서는 남북 이산가족과 친척들의 주소 및 생사확인, 자유로운 방문과 상봉, 자유로운 서신왕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 문제와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 등 5개항의 의제에 대해 합의했으나, 북한 측이 본회담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운 ‘반공입법들의 폐지와 반공기관 및 단체들의 해산’ 문제를 둘러싸고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교착상태에 빠졌다.

당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북한을 비밀리에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히 북한에 고향을 둔 실향민들은 이 회담에 큰 기대를 걸었고, 성급한 이들은 남북통일의 가능성까지 언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황석영의 『한씨 연대기』는 이러한 기대들이 성급한 것들이며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북통일은 물론 이산가족 상봉마저 쉬운 일이 아님을 경고하고 있다.

북한에서 고위 간부들만 치료하라고 강요했던 의대 교수들이나 남한의 동업자인 박가, 김가, 또한 한영덕을 체포하고 고문한 HLD 요원들, 고향 후배이면서도 체포에 가담하고 돈을 갈취하고자 여념이 없는 상호, 어떻게든 일단 구속한 한영덕에게 유죄판결을 내리려고 하는 검사, 재혼한 남편을 끝내 믿지 못한 윤미경 등은 타락한 사회를 대변하는 인물들이다.

한영덕은 이러한 타락한 인물들이 주도하는 분단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양심과 인륜에 따라 의술 행위를 펼쳤으나 결국 남북한 모두로부터 버림받고 의사로서의 길을 포기하고 불행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최후를 맞게 된다. 따라서 한영덕은 ‘겉으로 드러난 현실’의 차원에서는 분명 패배자일 수밖에 없지만, 소설의 아슬아슬한 구조를 통해 분단과 전쟁으로 인해 “세계의 총체성이 상실되었음을 전 존재적으로 체현하는” ‘비극적 인물’이자 ‘문제적 개인’이라 할 수 있다.⁷⁾

7) 『한씨 연대기』의 마지막 장면에서 한영덕의 딸 혜자가 아버지의 매장에 대한 따분한 기억을 갖고 싶지 않아 장례식을 치르기 전에 아버지의 유품 중 아버지의 삶과 정신이 온전히 담겨 있는 ‘수첩’을 집어들고 새벽에 역을 향해 뛰는 장면은 따라서 시사적이다. 한영덕의 삶이 남북한의 모순에 찬 삶을 가로질러 ‘문제적 개인’으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았음을 그의 수첩은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3. 민중과 지식인의 통합체로서의 ‘문제적 개인’

— 「객지」

1971년에 발표된 황석영의 「객지」는 간척지 공사판에서 일어난 ‘뜨내기 노동자들의 쟁의사건’을 다룬 작품이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뜨내기 노동자의 유형은 네 가지이다. 하나는 고용인과 일꾼들 사이에서 일꾼들을 감시하고 착취하는 기회주의적 유형이며, 두 번째는 장 씨로 대표되는 일꾼 대다수를 차지하는, 오랜 뜨내기 생활 끝에 나이 먹고 빚만 저 그저 일자리를 빼앗길까 전전긍긍하는 순응주의적 유형, 세 번째는 대위와 같이 현재 상황을 뒤집어엎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나 어떤 구조적인 변혁을 위해 치밀한 준비를 하기 보다는 무턱대고 덤벼드는 유형, 마지막으로 싸움의 대상과 동료들에 대해서 비교적 냉철하고 정확한 판단력과 이해력을 갖고 준비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인물인 동혁과 같은 유형이 있다.⁸⁾

대위와 동혁은 다함께 견고한 조직화를 통해 착취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고용자 측에 대항한다. 대위의 다혈질적이고 충동적인 대응 방식으로는 개인적인 감정만 표출시킬 뿐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대위는 자신의 몸과 혈기를 내 던져 상대와 한판 맞부딪치다가 상대방의 막강한 위력에 의해 희생당하는 한계를 보이는 점에서 타락한 세계와 맞서 있지만 감정적·개인적 수준 외의 다른 대처 방법을 알지 못하여 고용자 측에 의해 늘 패배당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노동자의 형상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하겠다.⁹⁾

「객지」에서의 ‘문제적 개인’은 「한씨 연대기」에서처럼 한 개인이 아니라,

8) 이중 ‘문제적 개인’에 가까운 인물은 가장 투쟁적인 성격을 지닌 대위와 치밀한 전략적 사고를 지닌 동혁이다. 동혁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뜨내기 노동자들도 반드시 조직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다. 그는 쟁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늘 상황판단이 정확하고 동료들에 대한 연민과 이해심을 소유하고 있는 인물로 그려지는 점에서 이상적 인물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대위는 전형적인 뜨내기 기질을 갖고 있는 인물로서 전략적 사고는 부족하지만 동혁에 비해 훨씬 생동감 넘치게 그려지고 있다.

9) 백문임, 「황석영론-뜨내기 삶의 성실한 복원」, 『현역중진작가연구 1』, 국학자료원, 377쪽. 백문임은 이 글에서 “대위에 비해 <객지>의 동혁은 “어떤 추상적인 당위나 관념에 의해 주입된 인물”이라는 혐의가 짙다. 다시 말해서 실제 노동현장에서 동혁과 같은 인물이 존재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따라서 동혁은 현실적 인물이 아니라 이상적·관념적 인물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대위와 동혁의 결합체’ 혹은, ‘대위가 동혁의 지도와 감화를 받아 앞으로 발전 되어갈 미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곧 몸과 혈기를 던지는 대위가 지닌 현실 감각과 생동감이 동혁이 지닌 전략적 사고와 만나게 되어야만 비로소 현실의 개혁이 가능하다고 작가는 보고 있는 것이다.

그는 자기의 결의가 헛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믿었으며, 거의 텅 비어 버린 듯한 마음에 대하여 스스로 놀랐다. 알 수 없는 강렬한 희망이 어디선가 솟아올라 그를 가득 채우는 것 같았다. 동혁은 상대편 사람들과 동료 인부들 모두에게 알려 주고 싶었다.

「꼭 내일이 아니라도 좋다」

그는 혼자서 다짐했다.

- 황석영, 『객지』, 창작과 비평사, 89쪽

동혁은 다른 노동자들이 쟁의를 통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하고 만족스러운 상태에서 독산을 내려갈 때, 홀로 독산에 올라가 노동자들을 바라 보며 남포를 입에 문다.¹⁰⁾ 그가 산을 내려가지 않는 이유는 고용자측이 머지않아 다시 폭력과 술책을 동원하여 기존의 노동자를 모두 내쫓고 새로운 노동자를 맞이하여 쟁의 이전의 상태로 모든 것을 되돌림으로써 쟁의가 사실상 실패할 것임을 내다보고 있기 때문이다.¹¹⁾

그는 고용자 측으로 대표되는 타락한 사회와 진정한 가치를 향한 내적 갈망(노동자들이 더 이상 착취당하지 않고 정당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세상에 대한 갈망) 사이에 낀 존재이다. 그러나 진정한 가치에 대한 그의 추구는 결국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모험이다. 또한 그는 ‘길이 끝난 곳(쟁의가 일단락 된 곳)에서 여행(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노정)을 시작한다. 독산 위에 올라가

10) 이 부분은 2000년에 중·단편전집을 내며 장렬한 동혁이 자폭하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으로 개작되었다. 전태일의 분신 자살을 어떻게든 소설적으로 형상화하고 싶은 열망의 발로였지만, 최원식, 임기현 등은 오히려 원작처럼 “상징이나 여운으로 처리하는 것”이 독자들에게 더 큰 감동을 안겨줄 수 있다고 아쉬워한 바 있다. 임기현, 『황석영 소설의 탈식민성』, 역락, 2010. 61쪽.

11) 이처럼 동혁이 쟁의가 일단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산에 올라가는 것은 루카치가 지정한 “문제적 개인의 내면으로의 여행”에 해당한다. 문제적 개인으로서의 동혁은 총체성이 파편화되어 사라지고 개인은 갈등과 소외감으로 가득 찬 자신의 어두운 내면에서 지도를 밝혀 주는 빛, 곧 뜨내기 노동자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끝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투쟁하고자 하는 동혁은 생전에 목적하는 바를 끝내 이루지 못하고 자폭의 길을 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화로운 삶을 향한 가치를 갈망하고 추구하는 모험을 멈추지 않는다. 그럼으로써 뜨내기 노동자 문제로 대표되는 당대 사회의 가치 부재 현상과 본질적 모순을 동시에 드러낸다.

이 때 동혁의 심리는 일종의 무언가에 썩은 듯한 마성적(魔性的)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는 자신의 목적이 결코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빛’을 찾고자 하는 탐구자의 자세를 포기하지 않는다. 결국 그가 추구하는 대상은 현실의 개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자신의 영혼을 구제하는 것이고, 그는 그에게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현실에 윤택된 상태에서부터 자기 인식으로 나아가는 노정(路程)을 보여준다.

그러나 동혁이 아무리 자기 인식을 획득하는 데 성공할지라도 현실과 이상의 사이의 균열, 즉 존재와 당위 간의 분열은 여전히 존재하고 쉽사리 극복되지 않는다. 결국 여기에서 주인공은 우리의 삶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이 기껏해야 삶의 의미에 대한 일별(一瞥)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다시 말해 소설은 의미가 결코 현실을 완벽하게 꿰뚫을 수는 없다는 쓰디쓴 통찰을 표현한다.¹²⁾

4. 집단적 인물로서의 ‘문제적 개인’

— 「돼지꿈」, 「삼포가는 길」

4.1. 민중 계층의 낙관성과 공동체적 인간애

「객지」가 노동소설의 선두에 선 작품으로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계급의식을 소유한 노동자를 다루지 않고 노동 운동의 핵심에서 벗어난 부랑 노동자들의 세

12) 「객지」는 뜨내기 노동자들의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나름대로 세력을 규합하여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비록 현장 사무소장이 은밀하게 계획하는 대로 쟁의를 주도했던 이들은 서서히 해고되고 점차 새로운 인력들로 인부들이 교체 되면서 공사장은 심장파 감독자들이 전횡을 일삼는 종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노동자들은 선배 노동자들의 사례를 거울삼아 대처함으로써 그렇게 만만하게 당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작품이 암시하는 대로 동혁이 희생하였다면 그의 죽음이 노동자들의 버리와 가슴에 남아 저항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계를 다름으로써 원천적인 한계를 지닌다는 평가가 있어 왔다.¹³⁾ 이에 대해 백문임은 뜨내기 노동자들을 다룬 황석영의 소설이 “부랑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일상과 현실의 힘은 어찌할 수 없는 관찰이나 정관의 대상으로 묘사되지 않고 인물들 자신의 실존과 필연적으로 결부될 수밖에 없는, 인물들의 자의의식과 결합된 대상으로 그려짐으로써 리얼리즘적 성취가 가능했다.”라고 평가하였다.¹⁴⁾

백문임은 또한 “황석영의 시선에 포착된 뜨내기 상황은 하루하루의 생계유지에 매달려 있는 것이면서도 자유로움, 생기와 더불어 동류들에 대한 연민을 보존하고 있으며, 그것은 개인주의적인 자유감일 수도 있지만 자본체적인 동질화가 스며들지 않은 공동체적 인간애이기도 하다.”고 지적하였다. 곧 “개인의 운명과 전체의 운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적인 인간관계를 ‘신성하고 생명적인 것’으로 여기는 이러한 시각은 황석영의 작품 세계 전체를 관통하는 것”이라는 그의 지적은 타당하다.¹⁵⁾

「이웃 사람」이나 「장사의 꿈」 역시 민중 계층에 속하는 인물들을 다루는 작품들이지만, 매혈(賣血)이나 매춘(賣春)을 일삼다가 파멸하는 인물을 고립적으로 다루고 있음에 반해, 『돼지꿈』과 『삼포가는 길』과 같은 작품은 집단적으로 형상화된 인물들을 다루고 있다.

「돼지꿈」에는 철거를 앞둔 변두리 동네에 사는 인물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 고물수집 행상 일을 하는 강 씨와 그 집안 식구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지만 특별히 그들만이 주인공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보다는 이 동네에서 농마주이, 포장마차, 행상, 공장 노동자 생활 등을 하며 어렵게 살아가는 민중 계층에 속하는 인물들 모두가 ‘집단적 인물로서의 문제적 개인’이라 할 수 있다.

강 씨가 우연히 얻은 개 한 마리를 잡아 동네 사람들은 조출한 잔치를 벌인다. 그들은 서로 돈을 모아 술을 마련하기도 하고 음식 만드는 일을 거들면서 그들만의 잔치를 즐긴다. 동네잔치 중간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동네 주민들의 비참한 생활상들은 이 잔치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강 씨의 딸 미순은 건달과 동거하다가 임신한 몸으로 돌아와 있으며, 집안의 기둥 역할을 하던 근호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가락 세 개가 절단되어 봉합 수술을 받았다. 그는 괴로운 마음에 과

13) 채광석, 「내일을 향한 죽음의 삶」, 『민족문학의 흐름』, 한마당, 1987.

14) 백문임, 앞의 논문, 369쪽.

15) 백문임, 앞의 논문, 378쪽.

음을 하며 자학한다. 공장에 다니는 여공들은 포장마차에서 먹은 떡값을 내지 않으려고 도망치고, 끝까지 쫓아온 주인에게 방세를 내달라고 조른다. 그 와중에 포장마차 주인 덕배는 경찰에게 이천 원을 뜯겨 사흘 장사를 망친다.¹⁶⁾

작가는 이들 민중계층의 고달프고 불행한 삶을 낙관적 필치로 인물들을 생동감 넘치게 그려나감으로써 작품이 ‘도식적 구성’이나 ‘단성성’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한다. 강 씨를 비롯한 동네 주민들은 모처럼 영양 보충할 기회를 맞이하여 즐거운 잔치를 벌이지만 사실 그 개는 부자들이 버린 개였다. 부자들이 처치 곤란하여 강 씨에게 맡긴 개를 잡아서 동네 주민들은 포식한 것이다. 동네 반장은 자기 덕분에 올해 안에는 집들이 철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하고, 강 씨의 아들은 손가락이 잘렸지만 동생의 결혼 비용을 보탬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여기며, 강 씨의 처는 임신한 몸으로 친정을 찾아온 딸을 동네 할아버지에게 시집보냄으로써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한다.¹⁷⁾

「삼포 가는 길」은 두 명의 뜨내기 노동자와 한 명의 작부가 우연히 동행하게 되면서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며 유대감을 느끼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하숙집 여주인과 눈이 맞아 정사를 벌이던 중 남편에게 발각되어 도망치던 영달은 전과 경력이 있으며 오랜 동안 공사판을 전전하다가 고향(삼포)을 향해 가던 정 씨와 길을 함께 하게 되고, 이어 서울 식당 작부로 일하다가 몸값을 떼어 먹고 달아나던 백화와 동행하게 된다.

영달과 정 씨는 백화를 서울식당에 잡아다 주면 사례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화를 잡아갈 생각을 일찌감치 거둔다. 영달은 백화에게 “우리두 의리 있는 사람들이다. 치사하다면 그런 짓 안 해.”라고 말한다. 이후 셋은 급속히 친해지면서 지난날을 이야기한다. 그중에서도 백화의 과거사는 세 사람

16) 이와 같은 날카로운 ‘대조의 수법’은 서영인의 지적처럼 황석영 초기 작품들이 지닌 중요한 미덕의 하나이다. 「객지」에서의 노동자들이 쟁의 끝에 얻은 성과와 현장소장의 치밀한 쟁의 수습방안의 대조, 「한씨 연대기」에서의 한영덕의 의사로서의 성실한 모습과 그가 겪어온 비참한 운명과의 대조, 「삼포가는 길」에서의 등장인물들 간의 따뜻한 유대와 비정한 산업화 양상과의 대조 등은 모두 당대 현실의 모순을 날카롭게 드러냄과 동시에 문제적 개인의 비극적 성격 및 작가의 낙관적 세계관 등을 복합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7) 이들 각자는 매우 불행한 처지에 놓인 소외된 인물들이지만 서로 의지하고 도와주면서 고달픈 삶을 이어나간다. 그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으며, 사태의 부정적 측면보다는 긍정적 측면을 바라보며 힘겨운 삶을 견뎌 나간다. 이처럼 민중 계층의 비참한 생활에 대한 객관적 반영과 작가의 낙관적 세계관의 융합 또한 황석영 초기 소설의 중요한 특질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을 한데 묶는 매개 역할을 한다. 백화는 군 형무소 근처에 있는 ‘갈매기집’이라는 주점에서 일하여 죄수 8명을 지극 정성으로 옥바라지하며 ‘즐겁고 마음이 평화로웠던 시절’을 보낸 바 있다.

「그런 식으로 여덟 사람을 옥바라지했어요. 한달 두달, 하다 보면 그이는 앞서 람들처럼 하룻밤을 지내구 떠나가군 했어요.」

백화는 그런 일 때문에 갈매기집에 있던 시절, 옷 한 가지도 못해 입었다. 백화는 지나간 삭막한 삼년 중에서 그때만큼 즐겁고 마음이 평화로웠던 시절은 없었다. 그 여자는 새로운 병사를 먼 전속지로 떠나보내는 아침마다 차부로 나가서 먼지 속에서 버스가 가리울 때까지 서 있곤 했었다. 백화는 그 뒤부터 부대 근처를 전전하며 여러 고장을 흘러 다녔다.

- 『객지』, 273쪽.

백화는 사회로부터 가장 소외받고 무시당하는 처지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아무 대가 없이 도와준다. 그녀가 상대에게 주는 것은 음식과 담배 정도이다. 이는 물론 물질적인 차원에서 보면 하찮은 것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받는 상대에게는 큰 위안이 된다. 백화가 군 형무소 수감자들에게 배운 음식과 담배는 사실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자아와 세계 사이의 깊은 심연을 메우고자 하는 영혼’이 담긴 선물로 ‘물화되기 이전의 순수한 가치’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백화의 행동은 『물개월의 새』(1976)에서 ‘미자’를 비롯한 물개월의 작부들에 의해서 재현된다. 이들 작부들도 과일 훈련을 받는 해병대 병사들의 뒷바라지를 훈련 기간 내내 하다가 마지막 밤을 함께 보낸 후 이들 장병을 전송하고, 다음 기수가 들어오면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 이 작품의 1인칭 화자 ‘나’는 처음엔 이들의 행동을 유치하다고 생각했지만 베트남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전투에 참여하게 되면서 생각을 바꾼다.

그리고 작전에 나가서 비로소 인생에는 유치한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서울 역에서 두 연인들이 헤어지는 장면을 내가 깊은 연민을 가지고 소중히 간직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미자는 우리들 모두를 제 것으로 간직하는 것이다. 물개월 여자들이 달마다 연출하던 이별의 연극은, 살아가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아는 자들의

자기표현임을 내가 눈치챈 것은 훨씬 뒤의 일이다.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물개월을 거쳐 먼 나라의 전장에서 죽어간 모든 병사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다.

- 『물개월의 새』, 192쪽.

백문임을 두 작품의 작부들이 보여주는 행동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이유에 대해서 “작가가 인간에 대한 애정이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인지를 놓치지 않고 예민하게 포착한 결과”이며, “그것은 자신의 육체로 직접 부딪치며 생존하는 사람들이 갖는, 삶에 대한 특유의 경외감에 연유한다.”라고 분석한 바 있다.¹⁸⁾

황석영 소설에 등장하는 노동자, 창녀, 낭마주이 등과 같은 하위 계층 인물들이 겪는 비참한 생활상은 당시 박정희 정권이 추구하던 경제 발전 및 산업화의 이면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작가는 당대 사회의 모순을 포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돼지꿈」, 「삼포가는 길」, 「물개월의 새」 등과 같은 작품에서 따뜻한 인간애와 희생정신, 유대감 등을 지니고 살아가는 이들의 삶에 대해 경외감을 표하고 낙관적 전망을 드러냄으로써 독자적인 문학세계를 구축하였다.

4.2. 고향 상실과 내면의 순수성

루카치는 “서사시의 주인공은 소설과 달리 결코 한 사람의 개인이 아니며, 서사시의 대상 역시 개인의 운명이 아니라 한 공동체의 운명”이라고 하였다.¹⁹⁾ 또한 “서사시가 그 자체로서 완결된 삶의 총체성을 형상화한다면, 소설은 형상화하면서 숨겨진 삶의 총체성을 찾아내어 이를 재구성하고자 한다.”고 하였다.²⁰⁾

앞에서 분석한 「객지」는 한 사람만이 문제적 개인으로 설정된 「한씨 연대기」와 달리, 노동자들의 현실태를 보여주는 대위와 이상적·관념적 성격을 지닌 동력을 미학적으로 통합함으로써 ‘문제적 개인’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돼지꿈」이나 「삼포가는 길」은 등장인물 모두, 곧 집단적 인물이 ‘문제적 개인’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작품들로 볼 수 있다.

18) 백문임, 앞의 논문, 379쪽.

19) G. 루카치, 앞의 책, 85쪽.

20) G. 루카치, 위의 책, 77쪽.

「돼지꿈」의 경우, 동혁과 같이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거나 ‘조화로운 삶을 향한 가치를 갈망하고 추구하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다. 등장인물들은 언제 철거될지 모르는 집에 살면서 늘 가난 때문에 고통 받는다. 가난은 단지 배불리 먹지 못하고 안락한 환경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들은 아버지 없는 아이를 출산해야 되고, 손가락이 세 개나 잘렸는데도 보상금 3만 원을 받고 회사 측에 더 이상 책임을 묻고 보상을 요구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인절미 값을 내지 못하여 도망치다가 잡힌 여공은 포장마차 주인에게 몸을 허락하고, 강 씨를 비롯한 동네 사람들은 부자가 버린 개를 요리하여 나눠 먹으며 흡족해 한다.

이들의 처지는 서로 엇비슷하고 누가 누구를 가르치거나 바른 길로 이끌지 않는다. 그들은 늘 소외받고 고통당하면서도 삶 자체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그들은 개인적으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불행하지만 공동체적 연대 속에서 그들만의 방식으로 서로에게 믿음과 위안을 주기 때문에 삶을 비판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건강한 정신을 잃지 않는다.

빈터에는 묘한 활기가 가득차 있는 것 같았다. 불이 모두 꺼져서 쇠술이 차갑게 식을 때까지 그들은 노래하고 춤을 추고 주정을 했으며 핏대 올려 말다툼도 하였다. 드디어는 하나씩 돌씩 지치고 피곤해져서 야기 때문에 비교적 시원해진 비좁은 방안을 찾아 돌아갔다. 빈터에서 그대로 풀아떨어진 사람들을 식구들이 제각기 찾아와 양쪽 겨드랑이를 받치거나, 질질 끌다시피하여 데려갔다. 근호는 아직 땅바닥 위에서 벌렁 드러누운 채였다. 그의 발치쯤에서 재속에 남아 있는 불 찌꺼기가 벌겋게 빛을 내고 있었다. 속치마 바람의 미순이가 개천을 건너서 빈터 쪽으로 걸어왔다. 배가 불렀지만 날렵하게 징검돌을 건너뛰는 모습이 작은 계집아이 같았다. 미순이는 나약하게 신음하며 앓고 있는 근호의 등을 살그마니 흔들었다. 만취한 사내가 노래를 부르며 뚝 위를 지나가고 있었다.

- 『객지』, 257쪽.

위의 인용문은 「돼지꿈」의 마지막 부분이다. 마치 소설 전체를 하나의 이미지로 압축해 놓은 것 같은 이 장면은 왜 이 작품의 제목이 「돼지꿈」인지 알 수 있게 한다. 이들은 결국 각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일에 지치고 술에 취한 몸을 뉘게 되는 것이지만 빈터에 감돌던 「묘한 활기」는 이들이 고단하게 살아가

면서도 끝내 좌절하지 않고 삶을 끈질기게 이어나가게 한다. 나아가 '묘한 활기'는 이들로 하여금 현재보다 나은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돼지꿈')을 갖게 한다. 술에 취해 울분을 터뜨리거나 현실을 외면하려는 남성들에 비해 강 씨 처나 포장마차를 하는 덕배 처는 규모 있게 살림을 해가며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삼포가는 길」 역시 「돼지꿈」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개인이 '문제적 개인'을 구성하지 않고 영달, 정 씨, 백화 등 세 명 모두가 '문제적 개인'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길을 걷는 동안에 세 사람 사이에 굳건하게 형성된 '민중적 연대의식'은 '문제적 개인'을 집단적 인물을 통해 미학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작가의 서술 대상이라 할 것이다.

영달과 정 씨는 모두 공사판을 전전하며 밑바닥 생활을 한다. 가족도 집도 없으며 특별히 모아 놓은 돈도 없다. 정 씨는 마지막으로 고향 '삼포'로 가서 농사를 지으며 살 생각을 하였지만, '삼포'가 이미 관광지로 개발 중이라는 소식을 듣게 된다. 따라서 정 씨나 영달 모두에게 '삼포'는 '육신과 영혼의 안식처'로서의 고향'으로서의 의미는 상실되고 '물화된 가치가 지배하는 산업화'를 대변하는 '공사판'으로서의 의미만 남게 된다.

작정하고 버르다가 찾아가는 고향이었으나, 정 씨에게는 풍문마저 낯설었다.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영달이 말했다.

「잘됐군, 우리 거기서 공사판 일이나 잡읍시다.」

그때에 기차가 도착했다. 정 씨는 발걸음이 내키질 않았다. 그는 마음의 정처를 방금 잃어버렸던 때문이었다. 어느 곁에 정 씨는 영달이와 똑 같은 입장이 되어 버렸다.

기차가 눈발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을 향해서 달려갔다.

- 『객지』, 276~277쪽.

오랜 동안 작부 생활을 해 온 백화도 '고향'을 상실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물론 백화는 영달과 정 씨의 배려에 의해 무사히 고향으로 향하는 열차에 몸을 실게 되지만 영달은 백화의 고향 생활이 그리 길지 않으리라 예측한다.

「셋, 며칠이나 견디나…….」
 「뭘라구?」
 「아뇨, 백화란 여자 말요. 저런 애들…… 한 사날두 시골 생활 못 배겨나요.」
 「사람 나름이지만 하긴 그럴거요. 요즘 세상에 일어난 안우루 인정이 확 변해가는 판인데」

- 『객지』, 277쪽.

영달과 정 씨의 짐작대로 백화가 고향에서 시골 생활을 해 나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백화는 사내들과 헤어지기 전에 ‘이점례’라는 자신의 본명을 밝히며 두 사람에게 대한 끈끈한 유대감과 믿음을 보여준 바 있다. 비록 이들은 앞으로도 뜨내기 노동자나 작부로서의 삶을 이어나가겠지만 이들 내면에 형성된 유대감과 믿음은 고달픈 삶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지탱하는 힘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돼지꿈」과 「삼포가는 길」은 모두 ‘공동체를 주인공으로 삼고 그 공동체의 운명을 그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서사시적 성격이 강하거나 소설로서의 성격이 불분명한 작품들이 아니다. 그것은 이들 작품에 그려진 공동체가 서사시 시대의 공동체처럼 “별빛만으로도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을 명백히 알고 있거나”, “모든 것이 새로우면서도 친숙하고, 또 모험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결국은 자신의 소유이거나”, “세계는 무한히 광대하지만 마치 자기 집에 있는 것처럼 아늑함을 느끼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들은 공동체이기보다는 공동의 운명을 지닌 ‘집단적 인물’이라 해야 옳을 것이다. 따라서 루카치가 지적한 바대로 이들은 “인식과 행위, 영혼과 형상, 자아와 세계 사이에 메울 수 없는 심연을 두고 있는 존재들, 곧 문체적 개인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비록 무지하여 현실을 비판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타락한 세상에 편승하여 살려고 하지 않는 인물들이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도 풍요와 행복을 허락하지 않는 세상에 대해 분노하면서도 윤리성과 내면적 순수성을 잃지 않는다.

5. 맺음말

지금까지 황석영의 초기 중·단편 소설에 나타난 ‘문제적 개인’에 대해 살펴 보았다. ‘문제적 개인’이라는 개념은 게오르그 루카치가 『소설의 이론』에서 제시한 개념이며 이후 루시앙 골드만이 『소설 사회학을 위하여』에서 발전시킨 개념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문제적 개인’이라는 개념을 특정한 개인만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물론 「한씨 연대기」의 한영덕처럼 한 인물이 ‘문제적 개인’으로서의 성격을 지닐 수도 있지만, 「객지」에서처럼 민중의 현실태와 가능태를 각각 지닌 두 인물이 미학적으로 통합됨으로써 ‘문제적 개인’을 형성할 수도 있으며, 나아가 「돼지꿈」이나 「삼포가는 길」에서처럼 집단적 인물이 ‘문제적 개인’을 구축할 수도 있다고 본 것이다.

이처럼 ‘문제적 개인’은 등장인물 중의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아이러니(irony)’로 대변되는 소설의 미학적 본질을 구성하는 요소를 가리키는 것이다. ‘문제적 주인공’은 타락한 사회와 진정한 가치를 향한 내적 열망 사이에 낀 존재를 가리키는데 그 존재는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조화로운 삶을 향한 가치를 갈망하고 추구하는 과정을 통해 그 가치의 부재를 드러내는 데” 해당 작품이 얼마만큼의 문학적으로 기여하였느냐의 문제일 것이다.

황석영의 초기 중·단편소설들은 그동안 1970년대 리얼리즘 문학, 민중문학, 노동자 문학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작품으로 높게 평가되기도 하고, 이들 작품이 지닌 ‘낭만적 편향’, ‘영웅주의’, ‘연민과 비애의 정서’ 등이 문제점이나 한계로 지적받기도 하였다. 작가 자신 역시 이들 작품이 지닌 경직성이나 표현의 단순성을 그 한계로 지적한 바 있다. 그가 출옥 이후 발표하는 작품들마다 다채로운 형식을 실험하고 있는 것은 바로 초기 작품들이 지녔던 이념적 경직성이나 표현의 단순성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에 황석영에 대한 연구는 개별 작품에 대한 단편적 연구에서 벗어나 박사학위 논문이나 본격 학술논문 등을 통해 보다 포괄적이면서도 심층적인 수준에서 전개되고 있다. 작가가 아직도 왕성하게 하고 있고, 이른바 ‘서도동기론’에 입각하여 새로운 문학적 시도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는 유보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황석영의 작품에 대한 전반적 연구의 단초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루카치의 소설 미학은 비록 100년 가까운 세월이 경과되었지만 아직도 소설의 장르적 본질을 가장 정당하고 깊이 있게 천착한 이론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리얼리즘 이론을 정립한 그의 학문적 성과는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이제 본격적인 황석영 연구가 바야흐로 시작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초기 루카치의 소설 이론과 같은 균형 잡힌 안목으로 그의 초기 중·단편소설들을 재조명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1. 기초자료

- 황석영, 『객지』, 창작과 비평사, 1974. 3.
_____, 『물개월의 새』, 창작과비평사, 2000. 9.
_____, 『개밥바라기 별』, 문학동네, 2008. 8.

2. 논문 및 단행본

- 김주연, 「떠남과 외지인의식」, 『현대문학』, 1979. 5.
백문임, 「뜨내기 삶의 성실한 복원」, 『현역중진작가연구』, 국학자료원, 1997.
오생근, 「황석영, 혹은 존재의 삶」, 『문학과지성』, 1976 가을.
오태호, 「황석영의 <입석부근>에 나타난 성장 모티브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41집, 한국문학연구회, 2010. 6.
이동하, 「황석영에 관한 두 편의 글」, 『문학의 길, 삶의 길』, 문학과지성사, 1987.
임기현, 『황석영 소설의 탈식민성』, 역락, 2010.
채광석, 『민족문학의 흐름』, 한마당, 1987.
최원식 외 편, 『황석영 문학의 세계』, 창비, 2003.
천이두, 「반윤리의 윤리 - 황석영의 “삼포가는 길”」, 『문학과지성』, 1973 겨울.
하정일, 「민중의 발견과 민족문학의 새로운 도약」, 민족문학연구소 편 『민족문학사강좌』 하, 창작과비평사, 1995.
게오르그 루카치, 반성완 역, 『소설의 이론』, 심설당, 1985.
G. H. R. 파킨슨, 현준만 역, 『게오르그 루카치』, 이삭, 1984.

<abstract>

Problematic individual in Hwang Suck-Young's Earlier Novels

Kim Seung-Jong

Hwang Suck-Young's 'Place away from home' is representing Korean labor novels in 1970s. And this novel evaluated having been arranged new milestones of Korean realism novels. In this novel, problematic individual that was named by Georg Lucás, is distributed two characters - 'Captain' and 'Dong-Hyeck'. Mr. Hwang shows sense of reality & level of recognition which the people possess through 'Captain', and intellectual capacity, leadership, strategic thought, and spirit of sacrifice through 'Dong-Hyeck'.

'Chronicle of Mr. Han' is describing doctor Han who was expelled both Korea -North Korea & South Korea. He is a problematic individual who is caught between corrupt society and inner desire for true value. He didn't compromise with corrupt society, and that society drive him a conner. North Korea sentenced him to death because he treated a girl who is not a party officer. And South Korea put the blame him to spy of North Korea. But Mr. Han revealed contradiction of divided Korea and Author criticize the power who abuses that contradiction for selfish purpose.

Problematic individuals of 'Pig Dream' & 'The road to Sampo' are not a individual but the people. Those characters of two works always neglected and suffered from corrupt society. But they never frustrate because of tie of people community & optimism. And they are showing beautiful love of

community which give everything that they have, to people who need their help. Their love of community is opposite side of unconscious rebellion which people is hiding.

Keywords : problematic individual, Georg Lucás, people, optimism

이 논문은 2010년 7월 31일에 투고되었으며, 2010년 8월 12일에 심사완료되어 2010년 8월 16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